



실로암 한인 침례 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SBC)

August 06, 2026, 10:30 a.m.

Ordinary Times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siloamkbc.org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www.siloamkbc.org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017 내 평생 사는 동안 I Will Sing unto the Lord

C1002 송축해 내 영혼 10,000 Reasons

C1165 여호와와의 유월절 The Lord's Passover

대표 기도 The Prayer of the People 김옥금 집사 Deaconess Ok Kim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다같이 All Together

출애굽기 Exodus 12:1-14

설교 Sermon.....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여호와와의 유월절 The Lord's Passover

III 화답 Response

성찬식 The Holy Communion 다같이 All Together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2026 년 9 월 13 일 임마누엘 침례교회와 연합 예배 및 친교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교회를 위하여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
- 자녀들
-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 여행하는 분들
- 권세자들

THE FIRST LESSON 출애굽기 EXODUS 12:1-14

- 1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 4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 5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 6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 7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 8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9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 10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 11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 12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 14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시편 PSALM 149

- 1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 2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 3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 4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 5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 6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 7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 8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 9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 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 본문 함께 살펴보기

로마서 13 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실천적 권면 부분에 속합니다. 앞서 12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바울은, 13 장에서 국가 권세에 대한 순종(1-7 절)을 다룬 뒤 곧바로 사랑의 빛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신앙이 개인의 경건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8-10 절에서 바울은 모든 계명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 요약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의도를 성취하는 길이 사랑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11-14 절에서 바울의 어조가 바뀝니다. 그는 "때를 알라"고 하며 종말론적 긴급함을 불어넣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임을 보여줍니다.

2. 말씀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사랑은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진 빛에 비유하며, 이 빛은 완전히 갚아도 다시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의 방식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갚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십계명 중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금지—은 모두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억지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진심으로 바라기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사랑은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깨어 있음은 종말론적 소망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방탕, 술 취함, 다툼과 시기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명령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새롭게 선택하라는 초대입니다.

3.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만 축소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 동료,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의 빛을 갠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툼과 원망 대신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준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습관—혐담, 비교, 조급함—을 의식적으로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매일 아침 새롭게 입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4.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최근 삶 속에서 "사랑의 빛"을 갠아야 할 구체적인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주에 벗어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사랑의 빛을 갠 작은 실천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공동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웃을 향한 사랑의 빛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 시대를 깨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GOSPEL 마태복음 MATTHEW 18:15-20

-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